

14일 은행도 휴무·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광복절 임시공휴일〉

대출 상환 등 17일로 연기 국립공원·과학관 무료 개방 병원 추가 진료비 자제 요청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인 14일에는 은행도 문을 닫는다. 국립공원 내 각종 시설과 국립광주과학관 등은 무료 개방된다.

또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의 진료비 추가 부담 등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자체도록 의료계에 요청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은행이 14일 휴무한다. 대출 상환이나 각종 결제도 17일로 자동으로 연

기된다. 은행과 보험, 저축은행과 신용카드 등 금융업권의 대출 중 14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분량은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고객이 원하면 13일 상환도 가능하다. 통신 등 각종 이용대금 결제일도 17일로 넘어간다. 예금 만기 역시 17일로 자동 연장된다.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3일에 인출할 수 있다.

14일 만기인 ELS 등 파생상품의 만기와 14일 입금 예정이었던 주식·채권 결제대금 입금일도 17일로 연기된다. 펀드 환매대금 인출시기도 다음 영업일인 17일로 밀린다. 자금이 필요하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다.

14일에 보험금이 필요하다면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 간 지급결제 등 거래 자금 거래는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건당국은 오는 14일 진료방기로 예약한 환자가 느닷없이 진료비를 30~50% 더 내게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이들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사회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14일 임시공휴일 진료할 때 사전 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4일 하루, 전국 국립과학관 등 광복절을 전후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시설 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정비일제를 빌려주는 풀옵션 아영장을 비롯한 전국의 국립공원 아영장 34곳, 주차장 43곳, 대피소 11곳 등 총 88곳이다. 단 민간에서 위탁해 운영 중인 시설과 연수시설, 국립공원 내의 사찰에서 개별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는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은 14~15일, 국립중앙과학관(대전)과 국립과천과학관은 14~16일 상설전시관을 무료 개방한다. 국립광주과학관에서는 물을 주제로 여러 실험을 해보는 '파리솔 아래 과학교실', '사이언스 매직쇼' 등이 열린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과학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北, 표준시 30분 늦췄다 15일부터 변경 "일제 잔재 청산"

북한은 지난 7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표준시를 빼앗았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표준시간을 기존에 사용하던 동경시보다 30분 늦춰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일제 강점기 이후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시인 동경시를 써왔으나 앞으로는 한반도 중앙부를 지나는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표준 시간을 정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7일 "현재의 시간보다 30분 늦은 시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준시간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명명한다"며 "평양시간은 8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는 지난 5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른 것"이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평양 촬영 자유롭네

이희호 여사와 함께 지난 5일부터 3박 4일간 북한을 방문한 사진작가 홍성규씨가 버스에서 촬영한 평양거리 사진을 9일 공개했다. 홍씨는 과거와 달리 평양 시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방북단원들을 북측이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 전통춤 거목' 이매방 명인 별세

'한국 전통춤의 거목' 우봉(宇峰) 이매방 명인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8세. <관련기사 16면>

1927년 목포에서 태어난 이 명인은 생전 예술가 중 유일하게 중앙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1987년)와 제97호 살풀이춤(1990) 등 두 분야의 예능보유자이다. 7살 때 목포 권변학교에 들어가 춤을 배우기 시작한 이 명인은 이대준 선생 등에게 승무와 북놀이, 검무 등을 배웠으며 5년간 중국에서 전설적인 무용가 매란방에게서 캅춤과 등불춤을 배웠다.

1948년 창작한 삼고무를 시작으로 초립동, 장검무 등 한국 전통춤의 틀을 잡은 그는 1951년 이후 60년 동안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한국 무용계를 풍성하게 했다. 이 명인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



림픽 개막 축하공연,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 초청 공연 등에 참여했으며 옥관문화훈장,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임방울 국악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정부는 평생 우리 춤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공로를 인정, 9일 은관문화훈장(2등급)을 추서한다고 밝혔다.

유족으로는 역시 무용가인 부인 김명자 여사와 딸 이현주, 사위 이석열씨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발인 10일 오전)이며 목포 문화예술회관 내 '이매방 춤 전수관'에도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특별기고-3박4일 평양 방문기

이희호 여사 방북, 남북관계 개선 지렛대 되길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평양의 지금 모습을 많은 사람이 궁금해 했다. 필자도 평양은 처음이다. 평양에 머무는 동안 백화원 영빈관에서 숙박을 하고 평양산원, 애육원, 육아원, 유선중앙연구소, 양로원 등 5개의 시설을 공식 방문했다. 평양 육류관에서는 평양냉면을 먹기도 했다.

필자는 수행원 중 15년 전인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3년 전인 2011년 김정일 위원장 조문 방북 때, 그리고 다른 일로 평양을 자주 다녀온 분들에게 지금의 평양 모습이 과거와 비교해 어떤지를 물었다. 이에 이구동성으로 나온 답은 "활기차고 밝아졌다"는 것이었다.

과거에 비해 거리에 자동차도 늘어나고 대동강 강변에도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들어섰다. 차도, 육류관 입구에는 냉면을 먹여 온 주민들로 붐볐다.

여성들의 옷차림도 한결 가볍고 밝아진 표정이라고 말했다. 묘향산에는 중국 관광객, 서양 관광객들이 눈에 띄었다. 특이한 점은 우리 일행들이 이동할 때나 머무는 곳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과거엔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했다고 한다.

묘향산 속소 한산호텔에서 방북단 중 한 인사가 이런 평양 방문 소감을 말하며 그 밑바탕에는 경제적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 일행 한 분이 "그렇다면 중국식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북측 인사에게 물었다. 북측 인사의 답은 단호했다. "중국식이냐? 우리식입니다."

한층 활기차고 밝아진 평양

아찔했는지 많이 변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숙정 정치나 국제적 제재로 인한 경직되거나 위축된 사회 분위기는 느낄 수 없었다. 북한은 변화를 선택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이희호 여사에 대한 예우는 극진하고 정중했다.

북측은 평양 순안공항 작로장에서 내린 일행을 공항 로비를 거치지 않고 VIP 통로를 지나 공항 밖에 기다리고 있는 승용차와 미니버스로 안내했다. 돌아갈 때는 더욱 과격적이었고 묘향산 한산호텔에서 출발한 차량이 그대로 순안공항 이스타항공 비행기 앞까지 안내했다.

방북 합의 이후 일부 언론에서 이희호 여사를 육로가 아닌 비행기로 오라는 것은 새로 단장한 평양 순안공항을 선전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한 북측의 반발을 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북측은 전혀 그런 기색을 보여 주지 않았다. 실제 방북단은 새로 단장했다는 순안공항 내부를 볼 수 있었다.

3박4일 동안 북측의 평명일 아태평화위 부위원장과 관계자들은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차 행렬 맨 뒤에서는 구급차가 따라다녔는데 이것은 고령인 이희호 여사가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북측 평명일 부위원장은 "이희호 여사님의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는 김정일 제1위원장의 인사말을 전했다. 맹 부위원장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희호 여사님을 선대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6·15선언을 하신 고결한 분기에 정성껏 편히 모시고 여사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 드리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무엇보다도 대화·교류·협력이라는 6·15의 메시지를 남과 북에 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대화가 딱딱하고 남북이 대결 상태로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6·15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준 소중한 방북이었다. 이희호 여사는 북측 인사들에게 "이번 저의 평양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 못 만나 아쉬워

이희호 여사의 방북은 남과 북은 물론 세계가 주목했다. 8월 5일 도착한 날 백화원 영빈관 숙소에 놓여진 텔레비전을 통해 중국 CCTV가 속보로 '이희호 여사 방조(訪朝)'라는 자막을 내보내며 오랜 시간 보도하는 것을 시청할 수 있었다.

이번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해 아쉬운 점도 있다. 먼저 우리 정부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개인 자격의 방북이고, 북에 전할 메시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굳이 고위 당국자까지 나와 임동원·박지현 등 6·15 관계자들이 함께 방북하는 것을 탐가워하지 않았다.

남과 북, 세계가 주목하는 이희호 여사의 방북에 의미를 크게 두려고 하지 않은 우리 정부의 태도는 못내 아쉽다. 이 여사께서 김정일 제1위원장을 포함한 북측의 지도자들을 만나지 못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좋은 계절에 편히 쉬어 가시라"는 초청 내용이 있었다고 하지만, 6·15의 상징적인 인물인 이 여사와의 면담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어찌 아쉬울 않겠는가.

하지만 이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지렛대로 삼아, 박근혜 정부와 여야가 하나 되어 남북관계 정상화시키고, 6·15로 만든 화해협력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93세의 고령에도 폭염을 무릅쓰고 평양을 방문한 이 여사의 3박4일 여정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일 것이다.

당신의 광장/침움의 광장! U-square

수비드[sous-vide] 떡갈비,삼겹살 & 돈까스

아이엘리시아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12,500원	8,500원	5,000원
1인, 2인용	14,500원	9,000원
		5,500원

수비드 삼겹살, 떡갈비, 돈까스 등 50여가지 다양한 메뉴 무한리필 (평일 16시이전 입장고객 1,000원 할인)

최상의 식재료에 최고의 셰프의 감성을 담은 음식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합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광천동)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公認 2015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1기)	광주교육대학교(127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5. 9. 4.(금) 09:10~11:0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5. 9. 4.(금) 14:10~16:0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5. 9. 5.(토) 09:10~11:00 (초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5. 9. 7.(월) 14:10 (중급반) ·월. 목. 여2반: 2015. 9. 7.(월) 19:00 (특급반) ·목요일 오후반: 2015. 9. 10.(목) 14: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5. 9. 12.(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5. 8. 3.(월)~9. 5.(토)	2015. 8. 3.(월)~9. 12.(토)
수업기간	2015. 9. 4.(금)~2016. 2. 13.(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5. 9. 7.(월)~2016. 2. 2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여2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건계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배우회) 부여	·12건계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시범배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6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투데이 경매

광주 광산구 쌍암동 근린시설
광주우편집중국 북측 인근에 위치
1층 ~ 3층 건물 주차타워 포함
대지 3238㎡ 건물 3090㎡
감정가 72억 2천
최저가 16억 5천

광주 북구 일곡동 근린 상가주택
사거리 코너 위치
지하1층 ~ 지상 5층
대지 755㎡ 건물 1360㎡
감정가 16억
최저가 11억 2천

광주 북구 중흥동 대지
대인교차로인근 일반상업지역
대지면적
오피스텔 무인텔 적합
대지 3190㎡ (965평)
감정가 40억 8천
최저가 28억 2천

광주 광산구 첨단 무인텔
객실 22개 1:1드라이브 인 방식
대지 1522㎡ 건물 1999㎡
감정가 34억 5천 6백
최저가 24억 2천

투데이옥션 이현석부장
010-9963-6345